

2025

04.

16^{WED}

—

14:00

16:00

노년의 고립,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25년 서울노인복지센터 사회적고립 연결 포럼

연결이 필요한 시대

뚝뚝! 한 걸음

종로구 내 고립 위험 중장년 및 노년가구의 고립해소 및
사회 참여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사업

2025년 서울노인복지센터 사회적고립 연결 포럼

연결이 필요한 시대

똑똑! 한 걸음

종로구 내 고립 위험 중장년 및 노년가구의 고립해소 및
사회 참여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사업

2025년 4월 16일(수)

서울노인복지센터 본관 3층 TOP작은공연장

2025년 서울노인복지센터 사회적고립 연결 포럼
연결이 필요한 시대 – 똑똑! 한 걸음

개요

- 일 시 : 2025년 4월 16일 (수), 14:00-16:00
- 장 소 : 서울노인복지센터 3층 TOP작은공연장, 온라인(유튜브) 탑골TV
- 대 상 : 유관기관 및 단체 실무자, 지역주민, 어르신 등
- 주 제 : <노년의 고립,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연결이 필요한 시대>

식순

1부

개회 및 인사말씀 (10)	14:00-14:10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스님 인사말씀	지웅 스님
기조강연 (30)	14:10-14:40	"연결의 힘: 고립된 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구축"	송인주 박사 (서울시복지재단)
민관주제발표 (60)	14:40-15:00	광역적 차원에서의 고립·은둔 대응 및 효과성	김응철 부장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5:00-15:20	공공기관의 노년기 고립에 대한 대응 및 효과성 - 종로 다시살핌단 운영 사례 기반	송해욱 팀장 (종로구청)
	15:20-15:40	민간기관 차원의 고립 대응 및 효과성 - 서울노인복지센터 똑똑! 한 걸음 성과 발표	최선희 부장 (서울노인복지센터)

2부

토크콘서트 (20)	15:40-16:00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연결과 협력 - 실제 사례 바탕으로 현장에서의 경험, 고민,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향에 대한 토크 진행	사회 유승규 대표(안무서운회사) 참여자 임현지 팀장(서울노인복지센터) 구혜현 주무관(삼청동주민센터) 백경순(똑똑한걸음 지킴이활동가)
---------------	-------------	--	--

Contents

기초 강연

연결의 힘 : 고립된 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구축

(서울시복지재단 송인주 박사)

민관주제발표

광역적 차원에서의 고립·은둔 대응 및 효과성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김응철 부장)

공공기관 노년기 고립에 대한 대응 및 효과성

(종로구청 송해욱 팀장)

민간기관 차원의 고립 대응 및 효과성 - 서울노인복지센터 똑똑한걸음 성과 발표

(서울노인복지센터 최선희 부장)

토크콘서트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연결과 협력

- 실제 사례 바탕으로 현장에서의 경험, 고민,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향에 대한 토크 진행

인사말씀



봄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요즘,
계절은 변함없이 새 생명을 틔우며 우리 곁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근한 날씨 속에서도 누군가는 여전히 외로움과 단절 속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점점 더 은밀하고 복잡하게 퍼져가며,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숙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종로구 내 고립 위험 중장년 및 노년 가구의 고립 해소 및 사회 참여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사업
- 똑똑! 한 걸음'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복지의 틀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적 연결을 다시 엮어가는 의미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고립 가구를 찾아 따뜻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려 주신 활동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주신 유관기관 관계자분들 덕분에 이 여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 더 따뜻하고 촘촘한 사회 연결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연결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고립과 단절이 일상 속에 스며드는 지금,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연결의 주체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의 문을 두드리는 작은 관심, 관계를 회복하려는 작은 움직임이 고립을 해소하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오늘 이 포럼이 그러한 움직임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연결'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함께 행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웅

기초 강연 01

연결의 힘 : 고립된 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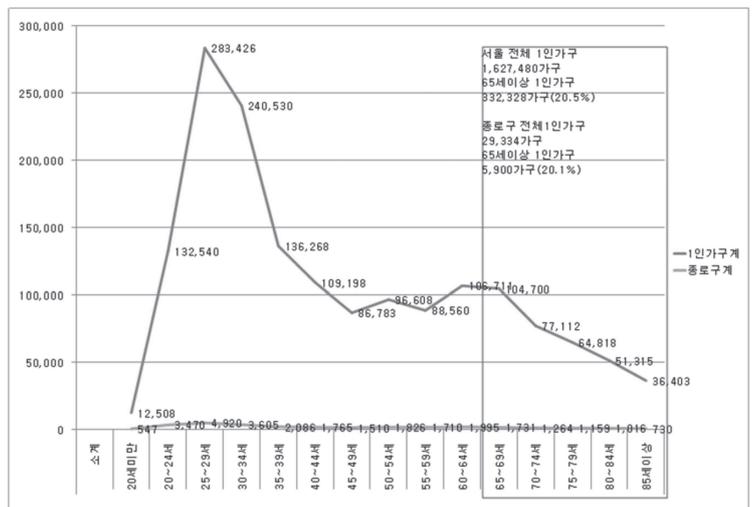
(서울시복지재단 송인주 박사)

연결의 힘, 고립된 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구축

송인주(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고립의 시대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혼밥, 온라인 구매, 비대면 노동, 등으로 인한 고립의 만연
- 사회적 고립은 연결되어야 생존할 수 있는 인간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
- 다양한 사회 현장에서 고립의 개선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어야함(노리나 허츠, 2022)
- 2024년 전국, 서울 노인인구 전체인구의 20% 이상
- 노인인구 중 1인가구 20%, 종로구도 2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독사 예방 사업의 개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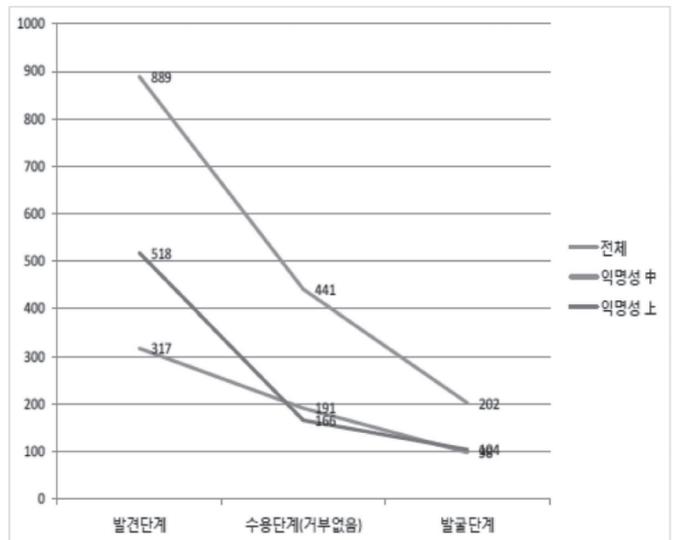
고독사예방사업 모델 연구 - 송인주 외(2020)

- 고독사는 극단적 고립의 결과
- 고독사 위험자 발굴의 중요성
-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집중한 사업
- 고독사 문제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의 탐색, 자원 조직, 접촉 거부 발굴과 관리체계마련의 과정 분석

구분	핵심활동	세부활동
준비와 발견	가본 적 없는 동네 탐색하기(2)	더 후미진 곳으로 인력 소개소에 찾아가다
	직접 연락하도록 하기(2)	홍보를 제작 배포하기 지역신문 활용하기
	공적, 사적 지원체계 조직하고 소개받기(6)	공적 서비스 탈락자 소개받기 지역 시민 홍보와 조직하기, 주민 간 소개하기 동협의회, 통장에게 알리고 소개받기 동네상점(수퍼, 약국, 고물상, 공인중개사 등)에서 걱정 되는 사람 추천받기 아파트 경비원 위험 신호 확인하기 지역사회 협력 기관 네트워크 구축하기
	기관과 연결고리 만들기(2)	1인가구 실태조사와 생필품(방역) 키트 활용하기 실태조사에 통장을 활용하기
접촉 거부 발굴	접촉을 늘리고 거부를 줄이기(4)	지인의 도움을 얻기 기관에서 직접 뛰기(찾아가는 상담, 아웃리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내용 개발하기 문밖에서 간접적으로 만나기(메모, 문고리대화)
	고립적 일상 생활 회복을 지원하기(3)	고립자에 대한 회복 목표 세우기 개인 밀키트(조리키트) 쿠폰 활용하기 통합적 지원 하기
	도구를 활용한 관계 맺기(3)	자원봉사자와 손작업 활동하기 스마트폰 어플 활용하기 반려식물 배포와 접촉하기
	코로나 19 방역상황에 대응하기(1)	협력체계(기관연계) 작동 포기 직접 활동 하기
관리 체계	기관 내외부의 통합관리 운영하기(2)	고립가구 대응 사업 통합적 운영 체계 구성하기 사업 전담인력 지지체계 운영하기

탐골공원과 서울 노인복지센터의 특수성

- 발굴 경험 분석 결과, 개인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익명성이 약한 집단(임대주택 거주)일 수록 거부 비율이 낮음
- 개인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집단인 익명성이 높은 집단일 수록 거부 비율이 높음(주민등록 미 이전, 주소지 불명, 쪽방 등)
- 익명성의 관점에서 탐골공원 방문자와 서울노인복지센터의 특수성은 무엇인가?
- 현재의 자신의 삶과 욕구를 드러내는 사람인가?
과거의 자신에 고착되어있는 사람인가?
- 익명성 기준으로 사업의 폭을 변경시킬 수 있음.



탐골공원과 서울 노인복지센터의 특수성

- 익명성을 중심으로 더 필요한 작업은 ?
- 가본 적이 없는 동네 탐색 방식을 활용하여 노인 복지센터가 위치한 곳 이외에 종로구의 동 중심 활동도 가능함. 지역으로 찾아가는 방식의 경험과 노하우 축적의 가치 있음.
- 재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서울노인복지센터의 특수성에서 일부 직접 서비스 연계와 사례관리 사업으로 운영전환 필요
- 하지만,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주요 고객인 탐골공원 노인 및 노인복지센터 방문자 특성과 고립에 대한 접근은 충분했는가 질문이 생김.

구분	핵심활동	세부활동	익명성 상	익명성 중
준비와 발견	가본 적이 없는 동네 탐색하기(2)	더 재미진 곳으로	✓	
		인력 소개소에 찾아가다	✓	
	직접 연락하도록 하기(2)	홍보를 제작 배포하기	✓	✓
		지역신문 활용하기	✓	✓
	공적, 사적 지원체계 조직하고 소개받기(6)	공적 서비스 탈락자 소개받기	✓	✓
		지역 시민 홍보와 조직하기, 주민 간 소개하기	✓	✓
		동협의회, 통장에게 알리고 소개받기	✓	✓
		동네상점(수퍼, 약국, 고물상, 공인중개사 등)에서 걱정 되는 사람 추천받기	✓	✓
		아파트 경비원 위험 신호 확인하기		✓
		지역사회 협력 기관 네트워크 구축하기		✓
기관과 연결고리 만들기(2)	1인가구 실태조사와 생필품(방역) 키트 활용하기	✓	✓	
	실태조사에 통장을 활용하기	✓	✓	
접촉 거부 발굴	접촉을 늘리고 거부를 줄이기(4)	지인의 도움을 얻기	✓	✓
		기관에서 직접 뛰기(찾아가는 상담, 아웃리치)	✓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내용 개발하기	✓	✓
		문밖에서 간접적으로 만나기(메모, 문고리대화)	✓	✓
	고립적 일상 생활 회복을 지원하기(3)	개인 밀키트(조리키트) 쿠폰 활용하기	✓	✓
		통합적 지원 하기	✓	✓
		자원봉사자와 손작업 활동하기	✓	✓
	도구를 활용한 관계 맺기(3)	스마트폰 어플 활용하기	✓	✓
		번리식을 배포와 접촉하기	✓	✓
	코로나 19 방역상황에 대응하기(1)	협력체계(기관연계) 작동 포기 직접 활동 하기	✓	✓
관리 체계	기관 내외부의 통합관리 운영하기(2)	고립가구 대응 사업 통합적 운영 체계 구성하기	✓	✓
		사업 전담인력 지지체계 운영하기	✓	✓

서울시 고독사 위험 현황과 서울노인복지센터

2021년 서울시 고독사 위험현황연구(송인주 외)

- 60대, 50대 남성 사례중심
- 자치구별 고독사:
 - 동대문구, 강서구, 관악구, 중랑구, 노원구, 은평구, 강북구, 용산구, 영등포구, 강동구, 금천구 순
 - 종로구의 고독사는 일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함
- 질병 특성
 - 당뇨, 고혈압, 관절염
 - 암, 간경화
 - 특이난치성 질환, 면역질환 등
- 공적 지원 서비스 특성:
 - 돌봄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적 없거나 중단한 사람, 주거 급여, 자활근로 기피 등

연령 현황



고독사 사례연구 내용(2020년, 송인주 외)

구분	성별	출생 년도	발견 주거	공적지원	정보제공자				면접자
					1차	2차	3차	4차	
사례1	남	1973	쪽방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동주민센터 담당자	쪽방상담소 직원	자치구 사례관리자	서울시 고독사 보고	복지현장활동가 (20년, 석사)
사례2	남	1944	쪽방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동주민센터 담당자	쪽방상담소 직원	쪽방 관리인	장례업체 기록	복지현장활동가 (20년, 석사)
사례3	남	1956	고시원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동주민센터 담당자	고시원장	가락시장 실태조사 노무사	장례업체 서울시 기록	복지현장활동가 (20년, 석사)
사례4	여	1933	임대 아파트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동주민센터 담당자	복지관 사례관리담당자			복지현장활동가 (20년, 석사)
사례5	남	1959	다가구 (반지하)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동주민센터 담당자	복지관 사례관리담당자	집주인 지역 상점	장례업체 기록	복지현장활동가 (20년, 석사)
사례6	남	1958	다가구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동주민센터 담당자 (현재, 이전)	집주인, 이웃	사회복지관 사례관리자 보건소 간호사	장례업체 기록	연구자 (15년, 박사)
사례7	여	1973	고시원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동주민센터 담당자 (현재, 이전)	고시원 사장	노숙인쉼터 대표	서울시 고독사 보고	연구자 (15년, 박사)
사례8	남	1958	임대 아파트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동주민센터 담당자	00센터 담당자	주민, 관리소	장례업체 기록	연구자 (15년, 박사)
사례9	남	1974	다가구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동주민센터 담당자	내과 전문의	서울시 고독사 보고 자료		복지현장활동가 (20년, 석사)

고독사 사례 속 탐골과 주민 특성

2) 사례 2 (남성, 1944년생, 쪽방촌 거주) - 1

(1) 조사 기간 : 2021년 5월 12일 ~ 8월 08일

(2) 정보제공자 : 동 주민센터 담당주무관(현재), 쪽방상담소 담당자, 쪽방관리인, 무연고사망자 장례업체 자료

(3) 개인특성(개요, 건강, 주요사건, 사인)

남성. 사망나이 76세, OO구 소재 쪽방촌 거주자이다. 혼인상태는 알수 없다. 사례자는 2009년 5월 13일 OO구에서 65세때에 처음으로 수급자가 되었다. 2011년 10월 29일에 쪽방촌에서 거주를 시작했다. 쪽방상담소에서 지원하는 물품을 수령했고 동주민센터의 안부 확인, 듀유 등의 물품 지급, 코로나 한파 관련 안부확인 대상이었다. 직접 사인은 급성 심정지사이고 유족으로 조카와 연락이 되었으니 시신 위임을 거절하였다.

고독사 사례 속 탐골과 주민 특성

2) 사례 2 (남성, 1944년생, 쪽방촌 거주) - 2

(4) 주거환경

쪽방상담소의 담당자는 쪽방촌 곳곳을 안내해줬다. 상담소는 주민들에게 정보를 안내하고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서는 길에 동행했다. 쪽방촌을 들어서니 벽화가 그려져 있다. 골목은 좁고, 골목 코너에는 3-4명의 주민들이 의자를 내어놓고 앉아있다. 벽에는 쪽방상담소에서 물품을 수령해가라는 알림 전단지가 붙어있다.

0.5평~2평 정도의 좁은 면적에는 약간의 세간과 한 사람으로 가득 차는 공간이었다. 월세는 22만원이다. 주방이 따로 없고 버너와 밥솥으로 밥을 해먹어야 하며 화장실과 샤워실도 공용으로 사용하는 환경이다. 사례자가 살고 있던 곳에는 이제 다른 이가 살고 있었다.

(5) 직업 : 무직이다.

(6) 가족관계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쪽방촌에 거주하는 8년 동안 찾아오거나 방문하는 가족이나 친척은 없었지만 가끔 친척이 있다고 얘기하긴 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죽고 나니 아무도 없어서 무연고로 장사를 지냈다고 안타까워 했다. 유족들과 통화 했으나 본인들에게 피해가 있을까 걱정하여 장례 및 시신처리 위임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고독사 사례 속 탐골과 주민 특성

2) 사례 2 (남성, 1944년생, 쪽방촌 거주) - 3

(7) 사회적 관계

<쪽방촌 주민들>

쪽방촌 골목으로 들어서서 보이는 슈퍼마켓에서 사례자를 아는지 물으니 모른다고 했다. 골목 어귀에 앉아있는 3-4명의 주민들에게도 그의 이름을 물으니 모른다고 하면서 쪽방 관리인을 찾아가 보라고 알려줬다. 쪽방촌 안에 친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사례자는 쪽방촌에서 8년간 살았다.

<쪽방상담소>

쪽방상담소 담당자에게 고인의 인상과 평소의 모습에 대해 물어보니 정장차림에 검은색 구두를 광내고 신고 다니신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며 개인 관리가 잘 되신 어르신이었다는 얘기를 들려준다. 물품 지원이 아니면 쪽방지원센터를 일부러 방문하진 않으셨고 자신의 서비스 욕구를 두드러지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도 전했다.

<탐골 공원 관련>

쪽방상담소 담당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례자는 매일 매일 양복과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탐골 공원으로 나섰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탐골공원에서 어떤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지 왜 탐골 공원에 매일 가는지는 아무도 말지 못했다.

고독사 사례 속 탐골과 주민 특성

2) 사례 2 (남성, 1944년생, 쪽방촌 거주) - 4

(8) 주요 문제와 지원 내용

<동주민센터의 지원>

2009년 처음으로 수급자가 되었다. 급여 제공이외에 특별한 자원연계는 없었던 걸로 보인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쪽방 상담소를 통해 생필품 지원, 상담 등이 제공된다.

<쪽방상담센터의 지원>

건강의 어려움도 특별하게 없었고 서비스 욕구도 표현하지 않으셔서 후원물품 외에는 특별한 자원이 연결되지 않은 걸로 파악된다. 생활 안전 지원 사업으로 기업, 모금 단체 등에서 후원한 물품을 지원했는데 센터로 방문을 하시진 않은 편이었고 일주일에 한번씩 방문하여 안부확인하고 전달할 물품이 있으면 방문 전달했다.

고독사 사례 속 탐골과 주민 특성

2) 사례 2 (남성, 1944년생, 쪽방촌 거주) - 5

2-1) 사망에 미친 직·간접적 원인 분석

<쪽방촌 양복신사>

사례자는 자기만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간 분이였다. 주변에 진술에 따르면, 매일 일정하게 어딘가를 나가고 꼭 식사를 챙기고, 옷차림도 흐트러지지 않은 점잖은 모습으로 기억했다. 쪽방 상담소 담당자에게 고인의 인상과 평소의 모습에 대해 물어보니 정장스타일로 왔다 갔다 하셨고 검은색 구두를 광내고 신고 다니신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며 개인 관리가 잘 되신 어른이었다는 얘기를 들려준다. 물품지원이 아니면 센터를 일부러 방문하진 않으셨고 자신의 서비스 욕구를 두드러지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전한다. 인사를 드리면 점잖게 답례를 하셨다고 한다.

쪽방 관리자의 진술이다. 그는 이 쪽방촌에서 8년을 살았다. 아침, 저녁은 버너와 밥솥을 이용하여 밥을 해드시고 고혈압이 있긴 했지만 매일 같이 나가실 정도로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 쪽방촌에서 8년 넘게 살았지만 그 내부에는 특별히 친하거나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찾아오거나 방문하는 가족이나 친척은 없었지만 가끔 친척이 있다고 얘기하긴 하셨다고 전했다. 하지만 결국 죽고 나니 아무도 없어서 무연고로 장사를 지냈다고 안타까워했다.

공영장례업체를 통해 확인하니 유족들과 통화는 했으나 본인들에게 피해가 있을까 걱정하여 장례 및 시신 처리 위임서 작성을 거부하여 무연고 담당자가 직권으로 장례를 위임했다고 한다.

고독사 사례 속 탐골과 주민 특성

2) 사례 2 (남성, 1944년생, 쪽방촌 거주) - 6

<쪽방촌 양복신사>

사례자가 매일 같이 양복을 차려입고 가신 곳이 어디인지를 물어보니 탐골공원이었다. 뜻밖의 장소이다. 쪽방촌 관리인은 왜 탐골공원에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매일같이 탐골공원을 가기 위해 옷을 차려입고 나가시던 어르신은 그날은 나오시지 않아서 관리인이 문을 열어보니 돌아가셨다고 한다. 모습은 얼굴이 까맣게 된 상태였고 사인은 급성심정지였다. 매일의 일상을 예측할 수 있는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발견될 수 있었다.

왜 탐골공원에 매일 같이 가신 걸까 질문이 생긴다. 이인수(1999)는 탐골공원을 이용 노인에 관한 논문에서 탐골공원은 사회적 역할 상실과 동료와의 사회접촉을 위한 공간으로서 노인군집에 의한 노인문화지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빈곤, 불건강, 고독, 무위라는 노인의 특성과 맞물리는 곳이라고 한다. 노인공원, 무료급식소 등이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소규모집단을 구성하여 독특한 문화를 이루려는 심리를 충족하기 좋은 곳이며 탐골공원이 주는 특성인 한국적인 문화지도층이라는 동료에도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노인의 일상생활 유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연발생적 집단 여가 공간으로서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자가 있으며 노인들의 정서, 심리, 생리적 특성을 충족시키는 특징을 가지는 곳이다(이인수, 1999).

그에게 탐골공원은 쪽방과는 다른 삶이 있는 곳, 다른 문화가 있고, 다른 구성원들이 있는 곳,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곳으로서 존재하지 않았을까 가정해 볼 수 있다. 탐골공원에서 공유하는 노인 지도층이라는 동료애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이입하는 곳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가 이입한 자기 정체성은 현실적인 삶의 공간인 쪽방과는 거리가 있었다. 쪽방의 이웃과 쪽방 관리인에게 예의와 함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탐골공원으로 매일 출근하면서 규칙적인 일상을 구성해 가는 사람이었다.

고독사 사례 속 탐골과 주민 특성

2) 사례 2 (남성, 1944년생, 쪽방촌 거주) - 7

2-1) 사망에 미친 직·간접적 원인 분석

<의지할 관계망의 부재>

동주민센터 담당자는 쪽방에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민들간에 형성된 유대감 등으로 쪽방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한다. 낙후한 주거를 개선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욕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아이러니다.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쪽방 평균 거주 기간은 10년 가량 될 정도인데 이들은 그 공간을 떠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 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이동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지만, 대체로 쪽방에서의 주거를 유지했다.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간에 공동체가 형성되어 이를 삶의 자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사람을 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한다면 낙후한 주거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쪽방이 모두에게 그런 공간이 될 수는 없다. 사례자는 쪽방촌에 8년을 살았지만 친분을 유지하는 이웃이 없었다. 그렇다고 다른 주거로 옮기려 하지도 않았다. 탐골공원이 가까운 입지는 낙후된 쪽방이라도 사례자에게 만족스러운 입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으리라고 짐작해 본다.

사례자에게 쪽방과 탐골공원은 그의 단정한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공간이지만 그는 단정하고 예의 바르게 시공간에 존재할 뿐, 쪽방과 탐골공원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거나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쪽방 공동체와 탐골공원 공동체 그 어디에도 긴밀히 소속되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급성 심정지사로 사망한 그는 공원 출퇴근 시간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쪽방 관리자가 발견하였다.

고독사 사례 속 탐골과 주민 특성

2) 사례 2 (남성, 1944년생, 쪽방촌 거주) - 8

2-1) 사망에 미친 직·간접적 원인 분석

<주변인의 외로움과 고립감>

사례자는 쪽방공동체와 탐골공원 공동체 그 어느 곳에도 긴밀히 연결되어있지 않았다. 가족과도 단절된지 오래되었고 소속되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그 어디에서도 충족하지 못했다. 자신만의 루틴(Routine, 반복적 과정, 일상)을 갖고 살아간 사례자의 규칙성은 인간이기 때문에 약해지고 의존하게 되는 모습을 감추는 도구였을 것이다. 양복과 반짝이는 구두가 실제로 남루한 자신을 가려주는 것 처럼 말이다. 그의 단정함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고립감이 급성 심정지사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해석해 본다. 주지하다시피 외로움과 고립감은 심장질환을 일으켜 사망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삶은 비단 사례자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례자의 삶의 모습은 가족, 주거공동체, 사회적 모임 어디에도 충분히 소속 되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규칙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 공원으로 산으로 어딘가로 향하는 역할을 상실한 많은 노인에게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스친다.

인류학자 김현경(2020)은 그의 저서 "사람, 장소, 현대"에서 사회적으로 자기의 공간과 자리를 갖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한 절대적 환대가 필요하다 주장한다. 절대적 환대는 도움의 손길을 뺏치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자리를 주고, 빼앗기지 않을 자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겉모습으로 알수 없는 외로운 내부자들이 이방인처럼 배회 하는 도시에서 김현경이 주장하는 절대적 환대가 어떻게 구체화 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사례를 통해 탐골노인, 고립노인의 접근방법

- 일상의 루틴으로 탐골공원과 노인복지센터에서 식사하는 노인의 고립에 관심
- 주거와 공간에 자신을 가두는 은둔 상태는 아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회적 지지 체계가 없는 고립 상태일 가능성이 높음
- 서울노인복지센터의 고객의 사회적 고립은 어떠한가? 해답 찾기
 - 현재 노인복지센터의 사업은 노인의 활동성, 적극성의 다양한 측면이 반영된 사업인가?
 - 소극적이고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노인을 위한 사업은 충분한가?
 - 이용자(회원 노인)의 루틴과 일상이 깨지는 순간의 위험과 관리 상황파악 노력은 충분한가?
- 기관 방문 노인의 고립상태를 초기 상담 시 파악하고 다양한 방식의 느슨한 관계와 정보 제공 필요 (서울시 외로움 고립 체크리스트 활용)

외로움 고립 체크리스트 사례

2025년 외로움 고립체크리스트 개발(송인주 외)

- 외로움과 고립상황
- 일상생활관리상황
- 위기상황 점검
- 욕구 상황 판별도구
 - 관계지원군
 - 일상지원군
 - 일상위험고립군
 - 집중관리군
 - 긴급위기군
- 위험단계별 선별 체크리스트로 활용 가능

■ 서울시 외로움 및 고립위험 체크리스트 질문지 (1번)

☞ 기하는 아래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지 정도를 점수로 기입하거나 V표 해주세요.

서울시 외로움 및 고립위험 체크리스트					
영역	아위내용				
	외로움 관련 (지난 4주간(한달)의 상황에 대한 질문일)	답변	점수		
관계 단절 상황 (5문항)	1-1. 나는 같이 있어 줄 사람이 부족하다고 자주 느낀다.	(1점) 거의 없다 (2점) 조금 그렇다 (3점) 자주 그렇다			
	1-2.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다고 자주 느낀다.	(1점) 거의 없다 (2점) 조금 그렇다 (3점) 자주 그렇다			
	1-3.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다고 자주 느낀다.	(1점) 거의 없다 (2점) 조금 그렇다 (3점) 자주 그렇다			
	사회적 고립 관련 (도움 줄 사람은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및 종교기관, 전문가, 담당자도 포함)		답변	점수	
	1-4. 나는 물어봐도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	(0점)있다 (1점)없다			
	1-5. 나는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상대가 필요할 때 알아줄 사람이 있다.	(0점)있다 (1점)없다			
평가	[도움필요 기준] 외로움 5점 이상이고 사회적 고립 1점 이상 : 해당(V 표시) □				
일상 생활 관리 상황 (7문항)	일상생활유지와 혼란 외출 관련 (지난 4주간(한달)의 상황에 대한 질문일)			답변	점수
	2-1.(위생관리) 개인위생과 집안 청소 등 관리가 되고 있다. (☑) 관할자명(가능)				
	2-2.(식사관리) 끼니를 거르거나 음식하지 않고 꾸준히 식사관리를 한다.				
	2-3.(재정관리) 생활비, 용돈과 공과금 납부를 잘 관리한다.				
	2-4.(건강관리) (신체정신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병원도 가고 약도 잘 챙겨 먹는다.				
	2-5. (외출/운동) 혼자 필요한 활동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외출한다.				
	2-6.(대인관계) 다른 사람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거나 교류한다.				
2-7.(생활패턴) 일상생활이나 수면 패턴이 규칙적이다.					
평가	[도움필요 기준] 아니다 2개 이상 : 해당(V 표시) □				
☞ 중간결과 : 관계단절상황과 일상생활관리상황 모두 '도움필요'시 아래 응답 진행, 해당 없으면 일반사항 응답 요양					
위기 상황 (6문항)	위기 상황			답변	점수
	3-1.장이나 민생적 상황이 있고 관려하고 있지 않거나, 어떤 면도 간헐적 산양일만 정신질환 등)				
	3-2.돌봄 서비스 및 치료 (입원)를 해야 하지만 사용하지 않거나 중단했다.* (☑의뢰시 관할자 명기 가능)				
	3-3.나는 지난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의뢰시 관할자 명기 가능)				
	3-4.이혼, 사별 등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로 고통 받았고 지금도 이어진다.				
	3-5.실력, 실력, 사기피해, 과실, 채무불이행 등으로 고통 받았고 지금도 이어진다.				
평가	*문항 2개 이상 긴급위기 해당(V 표시) □, *이외 문항 2개 이상 일반위기 □, 해당없음 □				
☞ 유형판별 : 각 상황별 평가를 바탕으로 유형 판별 해당에 V 요양					
관계단절상황만 해당	일상생활관리상황만 해당	관계단절+일상관리 도움필요 해당 +위기상황 해당 없음	일상위기해당	긴급위기해당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노인고립 예방 모델 개발 필요

- 탑골공원과 노인복지센터에 오는 노인의 다양성 관점에서의 이해 필요
- 서울노인복지센터의 “공간 사회적 기능”을 “고립 문제와 연결시켜” 재설정
 - 지공거사의 일상과 이동 루트 속 센터의 기능 : 일상의 주요 거점으로 소극부터 적극적 의미
 - 전 자치구 또는 경기도 인근 노인 방문 : 자신의 고립 여부를 인지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 식사와 소통으로 느슨하게 연결된 노인의 거점 : 비언어적 소통과 교류로 사회적 만남 공간
 - 느슨한 모임 공간 (식사 대기 장소에 관계 지원 정보 제공과 고립 인식 확대)
 - 미국의 보스턴 중독 센터의 서비스 상담 기관 운영 사례
 - : 중독과 재중독에 대한 낙인감이 없도록 상담소 같지 않은 카페에서 정보교류와 전문가 만남
- 노인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고유모델필요
 - 탑골 공원 발굴과 지원체계연계 거점 기능 역할

민관주제발표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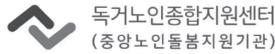
광역적 차원에서의 고립·은둔 대응 및 효과성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김응철 부장)

<노년의 고립,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연결이 필요한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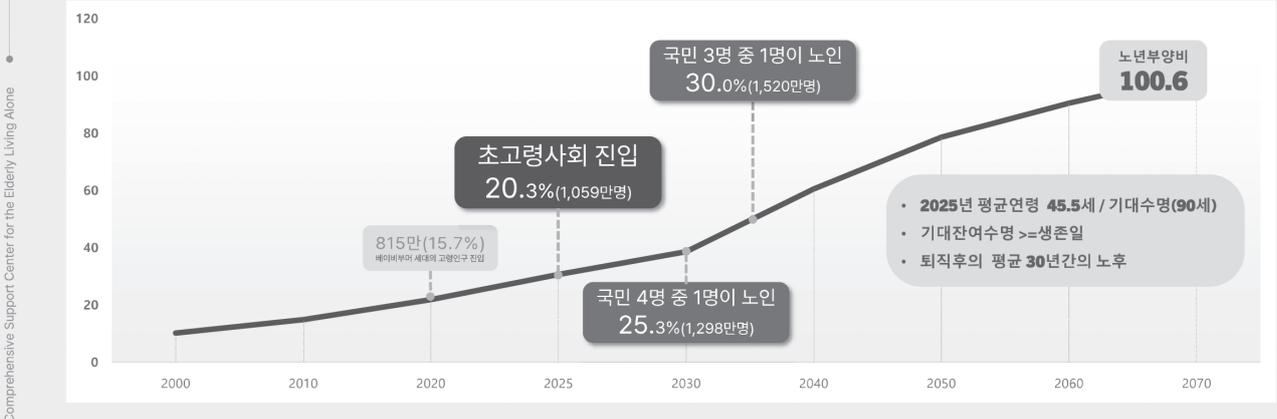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반 고립 예방 및 대응 효과성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김응철



우리나라 고령화 실태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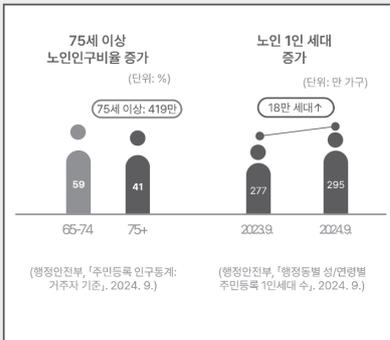
✓ 저출산 장기화, 급격한 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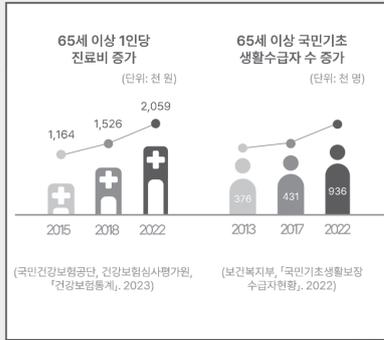
우리나라 고령화 실태 및 현황

✓ 노인인구 구조와 사회경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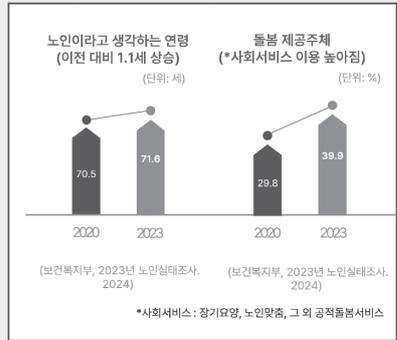
75세 이상 후기노인, 1인 세대 증가



사회적 비용 증가 (진료비 / 기초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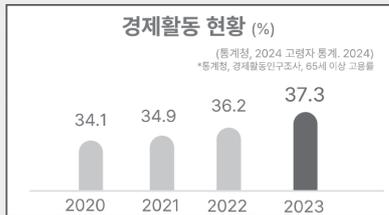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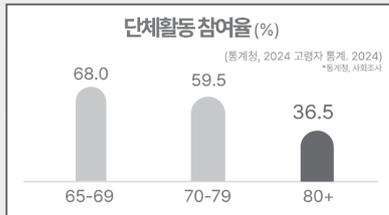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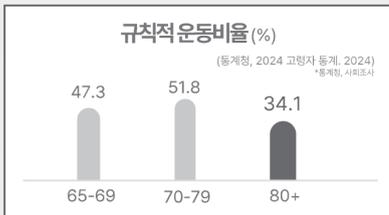
노인연령과 돌봄인식 변화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우리나라 고령화 실태 및 현황

✓ 노인의 삶 (신체건강/ 단체활동/교육/소득/고용/디지털)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

• 소득보장



• 돌봄보장



우리나라 고령화 실태 및 현황

✓ 초고령사회, 100세 시대 대응



국가

사회보장 및 시스템 강화



사회

노인 및 노후에 대한 인식 전환



개인

일상생활의 자립력 향상

초고령사회 대응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기관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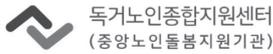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취약노인 돌봄사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취약노인, 종사자, 수행기관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중앙기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탁현황

- 설립일자 | 2011. 01. 07.
- 위탁법인 |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 위탁주최 | 보건복지부
- 위탁기간 | 2021. 1. 1. ~ 2025. 12. 31.
(*최초 : 2018. 1. ~ 현재)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노인복지법 27조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아름다운 노후,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초고령사회 대응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기관소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정책지원

노인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의 사업 운영을 지원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과 소진예방 등의 심리·정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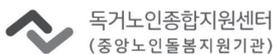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취약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고자 민간자원 발굴과 연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돌봄서비스 정책모델
개발 및 연구

노인돌봄제도 관련 정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지원합니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아름다운 노후,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초고령사회 대응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호

제공서비스

안전지원 서비스	사회참여 서비스	생활교육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에게 적절한 예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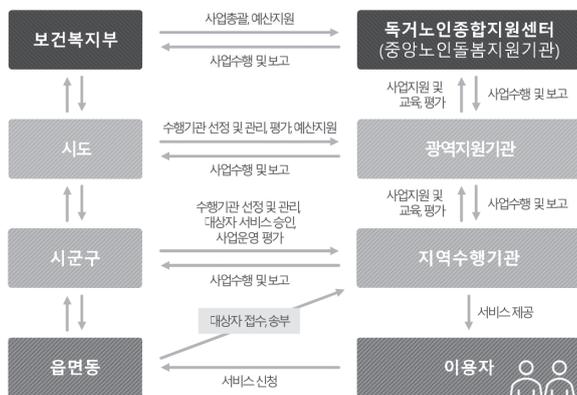
아름다운 노후,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초고령사회 대응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55만명	제공기관 670개소	종사자 38,334명
--------------------	----------------------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아름다운 노후,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초고령사회 대응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목적



돌봄이 필요한 요보호 노인의 고독사 방지 및 노인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보호사각지대의 취약노인에게 상시적 안전확인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함께 마주하며 정을 나누는 마음있는봉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단체의 임직원 자원봉사자(나눔천사)와 취약노인이 결연되어 정기적인 방문봉사 또는 후원금품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수화기를 통해 따뜻함을 나누는 사랑있는전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단체의 임직원 자원봉사자(나눔천사)가 취약노인에게 정기적으로 안부확인 전화를 드리는 봉사활동입니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취약노인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 구축

후원기관 · 단체 및 보건복지부 등 파트너십 구축

기업 홍보 지원

기업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지원

인센티브 지원

후원기관 · 단체 감사피드백 및 지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아름다운 노후,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고립 예방 및 대응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공공-민간 연계 돌봄
 - * 시군구 책임 대상자 발굴 및 관리 책임
 - * 민간 복지제공기관 권역 책임제
- 생활지원사 파견 및 활용
 - * 1:15 이영자-생활지원사 매칭
 - * 밀접한 관계망 유지 및 정기적 안부
- 사회참여 및 사회 관계 지원
 - * 생활교육, 사회참여 프로그램 제공
 - * 다양한 공공-민간 자원연계 창구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 은둔형 사례관리
 - * 은둔형 노인 발굴
 - * 집중사례관리를 통한 사회관계 회복 지원
- 우울형 사례관리
 - * 우울진단 노인 대상 집단 프로그램 제공
 - * 약물치료지원-임상적 사례관리
- 전담 및 전문자문위원 체계
 - * 특화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 배치
 - * 학계-현장-임상전문가 자문위원 체계

돌봄공백 프로젝트

- 적시 돌봄서비스
 - * 퇴원환자 등에 적시에 적절한 돌봄 제공
 - * 고비용 돌봄필요 진입 예방
- 적정 돌봄서비스
 - * 영양지원, 가사지원, 이동지원
 - * 이용자 기능상태 유지 및 강화 촉진
- 신노년 사각지대 대응
 - * 소득으로 인한 역사각지대 대응
 - * 불충분한 돌봄에 대한 Care-mix 대응

디지털 돌봄 서비스

- 고독사 대응 안전확인
 - *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 IoT등 활용
 - * Si기반 안부확인 콜서비스
- 사회적 관계 및 관심 유도
 - * LLM기반 일상대화 기록 및 콘텐츠생성
 - * 스마트폰 App 활용 사회참여 촉진
- 사회활동 및 참여 촉진
 - * 디지털 활동 포인트 제공
 - * 디지털 교육 및 배움터 조성

초고령사회 대응

노년의 고립,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고립예방과 대응의 필요성

- 생명권, 건강권,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이를 방지할 책무**
- 고립, 은둔, 자기방임, 고독사, 사각지대는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사회적 약자의 위험 상태가 **단계적으로 심화되는 흐름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

구분	정의	특징	개입 포인트
고립	사회적 관계 단절 상태 (가족, 이웃, 지역사회 등과 단절)	외로움, 우울감, 무기력 증가	커뮤니티 연계, 안부확인, 복지 정보 제공
은둔	스스로 사회와의 접촉을 회피하고 폐쇄된 생활을 하는 상태	사회활동 중단, 우울증 위험 ↑	방문 돌봄, 심리상담, 사회참여 유도
자기방임	자신의 건강·위생·안전을 스스로 방지하는 상태	영양실조, 질병 악화, 주거환경 열악	사례관리, 정신건강 지원, 긴급자원 연계
고독사	고립된 상태에서 홀로 사망하고 장시간 발견되지 않는 죽음	생명권 침해, 사후 발견 지연	위기징후 감지, 돌봄 체계 강화, 조기 대응
사각지대	제도적 보호에서 벗어나 행정·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	복지 미신청, 정보 부재, 은폐된 위기	데이터 기반 발굴, 주민 제보, 민관 협력

초고령사회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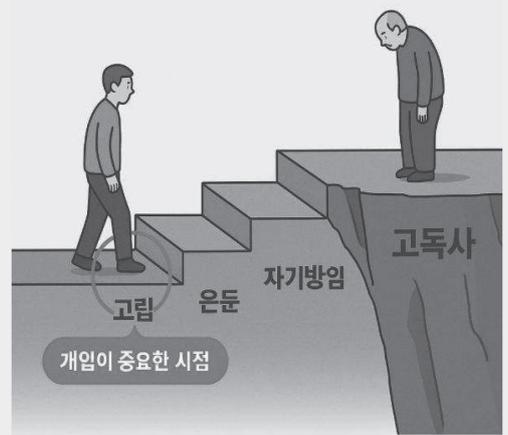
노년의 고립,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고립 예방 접근

- 사회적 접촉이 남아있고, 개입수용성이 있는 시점
- 은둔단계의 경우 도움을 거부하거나 회피
-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욱 효과적/효율적

✓ 고립 대응 방안

- 단계/유형/상황별 개입접근전략 요구
- 공공-지역사회-이웃 등 다차원 접근과 협력 요구
- 사회적 연결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



민관주제발표 03

공공기관의 노년기 고립에 대한 대응 및 효과성
- 종로 다시살핌단 운영 사례 기반
(종로구청 송해욱 팀장)

공공기관의 노년기 고립에 대한 대응 및 효과성

종로구 “위기가구 다시살핌단” 운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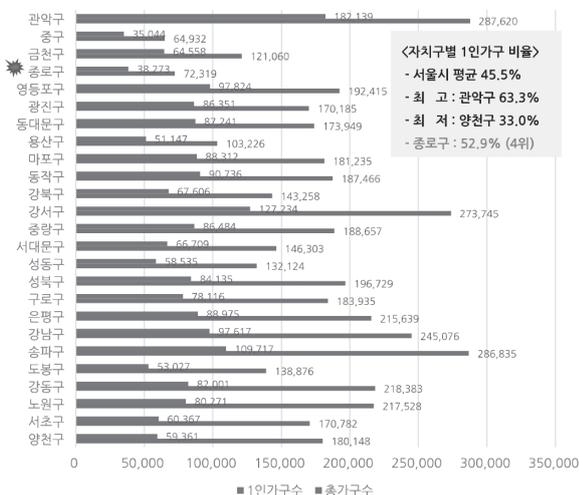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 송해욱

1. 종로구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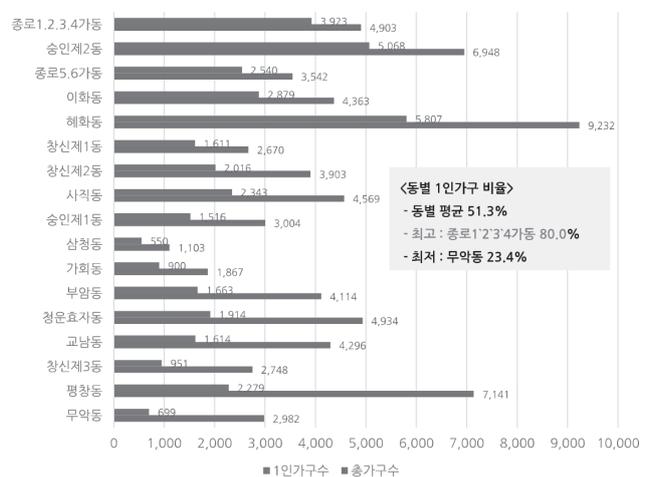
인구 현황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참조 (<https://jumin.mois.go.kr/>)

서울시 자치구별 총가구수 / 1인 가구수 (‘25.2월기준)



종로구 동별 총가구수 / 1인 가구수 (‘25.2월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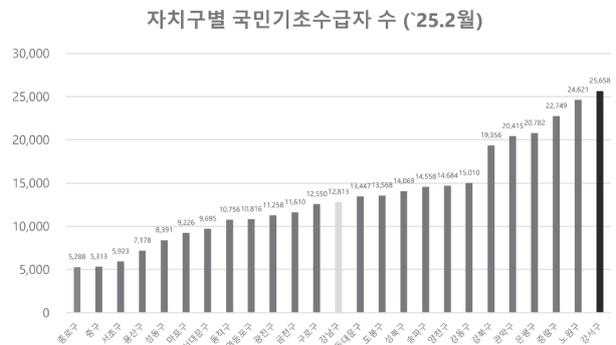
1. 종로구 일반 현황

복지대상자 현황 ※ 행복e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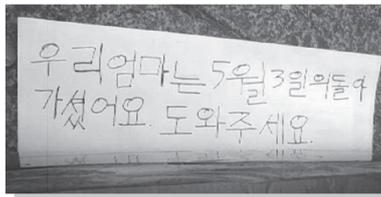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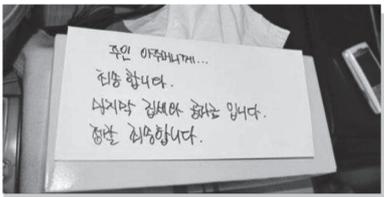
구분	세대수	세대원수	1인가구	1인가구 비율
전체 인구	72,319	138,277	38,273	52.9
국민기초수급자	4,715	5,523	4,066	86.2
기초수급자 비율	6.5	4.0	10.6	

- ✓ 종로구는 25개 자치구 중 인구수가 2번째로 적은 자치구임. 반면, 1인 가구수는 4번째로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음.
- ✓ 대표적인 복지대상자인 국민기초수급자 수는 25개 자치구 중 가장 적은 자치구임.



2. 종로구 “위기가구 다시살핌단” 추진 배경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다양한 주민 복지공동체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있음에도 송파 세모녀(2014년 2월), 서초 방배동 모자세대(2020.2월)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 발생



- 고령 인구, 1인가구 증가로 사회적 문제 발생, 고독사 증가가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그 특징도 다양화
 - ❖ 신체적으로 건강한 청년층은 학업 취업 스트레스와 실직, 사회적 고립이 원인
 - ❖ 중장년층의 경우 갑작스런 실직과, 이혼 등과 같은 가족해체로 인한 삶의 포기
 - ❖ 노인의 경우 건강 악화, 준비되지 않은 노후 경제상태, 돌봄(공적·사적)의 부재 등
- 복지공무원의 취약계층 모니터링 활동 지원자로서의 보다 강화된 인적안전망 필요
 -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고독사위험군 등과 같은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공무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을 잘 아는 주민에 의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과 같은 다양한 인적안전망이 운영되고 있으나 보다 강화된 운영형태 필요

3. 종로구 “위기가구 다시살핌단” 구성 형태

“종로 위기가구 다시살핌단”

종로 위기가구 돌봄단

- ❖ 추진방법
서울시 동행일자리 공모사업 (舊 공공근로사업)
- ❖ 운영기간 : 연중 상시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 ❖ 활동인원 : 30명(동별 1~2명)
- ❖ 활동시간
월 120시간 內 / 주 5일 / 1일 6시간 이내
- ❖ 활동내용
 - ✓ 책임관리제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
 - ✓ (발굴) 노인, 장애인, 중장년 등 복지사각지대 가구
 - ✓ (돌봄) 주2회 이상 정기적 전화, 방문 안부확인
 - ✓ (지원) 공공·민간 자원 연계 역할 수행



우리동네 돌봄단

- ❖ 추진방법
서울시 고독대응과 “고독사예방사업” 일환으로 추진
- ❖ 운영기간 : 연중 상시
매년 1~12월
- ❖ 활동인원 : 32명(동별 1~4명)
- ❖ 활동시간
월 48시간 內 / 주 3일 / 1일 4시간 이내
- ❖ 활동내용
 - ✓ 고독사 예방 돌봄
 - 주1회 이상 정기적 전화, 가정방문 안부 확인
 - 산책, 취미활동 등 사회적 관계망 지원
 - ✓ (지원) 공공·민간 자원 연계 역할 수행

4. 종로구 “위기가구 다시살핌단” 주요 활동내용

01 위기가구 발굴

필수 대상

-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중지, 제외, 변동대상자
- ② 사회적 고립 1인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대상자
- ③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정기조사 대상자
- ④ 숨은 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 대상자 (복지부+종로구)
- ⑤ 종로 복지등기 우편 대상자
- ⑥ 폭염·한파 등 취약계층

발굴 방법

- ✓ ①~⑥ 대상자 가정방문 등을 통한 발굴
- ✓ 구역별 책임관리제를 두고 현장 방문 시 (질병, 채무, 실업, 체납고지서, 빈 술병 등) 위기 사유가 보여지는 가구 확인
- ✓ 주소지와 거주지가 달라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구역을 나눠 저소득 밀집 지역(고시원, 독방, 반지하, 옥탑방 등) 위주로 현장 방문

4. 종로구 “위기가구 다시살핌단” 주요 활동내용



02 위기가구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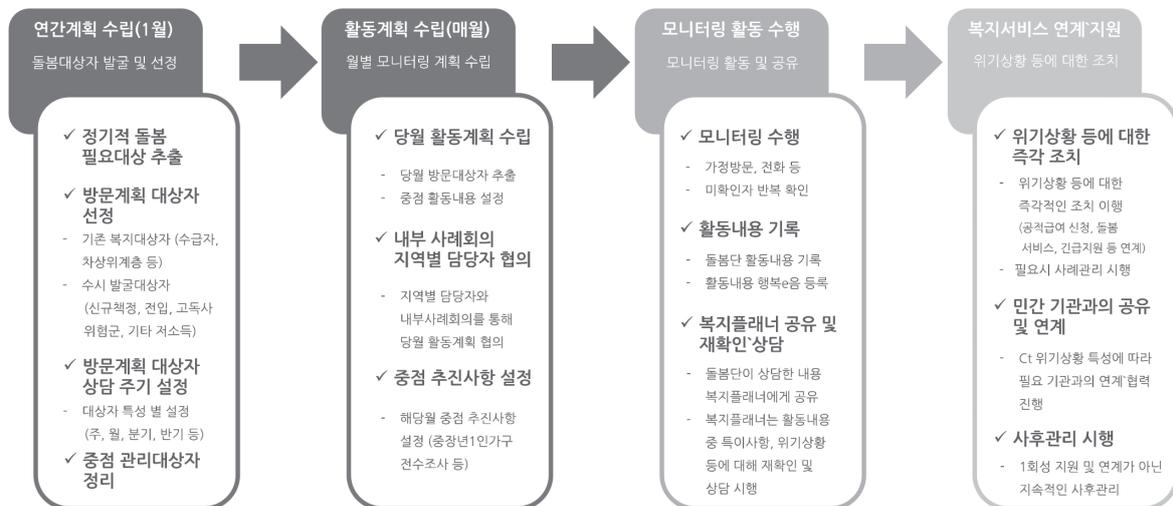
- ❖ 정기 가정방문 및 안부 확인
 - 우리동네돌봄단 : 1인당 / 돌봄필요대상 40가구 (주 1회이상)
 - 위기가구돌봄단 : 1인당 / 돌봄필요대상 30가구 (1일 2~3가구 이상)
- ❖ 사회보장서비스 등 공적(고독사예방)
 - 사회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및 연계
- ❖ 활동일지, 활동계획표, 정기 회의록 작성을 통한 체계적 관리



03 위기가구 지원

- ❖ 사회적 관계망, 주민관계망형성사업 지원
 - 산책, 우울증 예방교육, 음식 만들기, 노래교실 등 취미생활 공유 등
- ❖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 AI안부확인서비스, 스마트플러그, IOT, 살피미앱, 돌봄SOS서비스,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어르신 도시락 지원, 건강우유배달 등
- ❖ 민간·공공 자원 연계 (서울형긴급지원, 푸드마켓 등)

5. 종로구 “위기가구 다시살핌단” 업무 수행 절차



6. 종로구 “위기가구 다시살핌단” 2024년 추진실적

2024년 洞별 다시살핌단 추진실적

동명	계	발굴	돌봄	지원
청운효자동	2,684	3	1,874	807
사직동	7,444	0	6,811	633
삼청동	2,638	3	2,127	508
부암동	5,470	0	4,756	714
평창동	6,982	16	6,387	579
무악동	6,151	1	5,703	447
교남동	11,103	1	9,939	1,163
가회동	2,035	0	1,394	641
종로1'2'3'4가동	15,522	0	14,548	974
종로5'6가동	7,776	19	5,267	2,490
이화동	6,162	0	5,726	436
혜화동	6,684	4	6,045	635
창신1동	5,134	744	4,278	112
창신2동	9,167	23	6,358	2,786
창신3동	10,962	29	9,070	1,863
송인1동	8,842	45	8,115	682
송인2동	9,523	0	8,655	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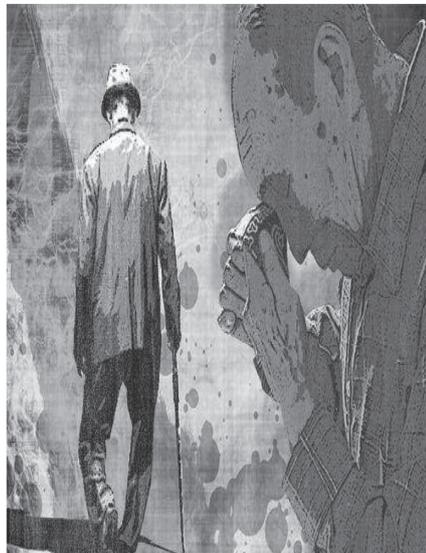


위기가구 다시살핌단과 함께 민·관 협력 고독사 위험군 발굴 사례

병원 의뢰로 시작

- ✓ 가족관계 단절된 채 쪽방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독거 어르신
- ✓ 음독(농약)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본인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 중환자실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가정으로 복귀
- ✓ 병원에서 동주민센터에 자살 시도 사실을 통보하여 개입함.
- ✓ 자살 시도 후유증으로 급성 치매, 정신과적 문제 발생으로 혼자 스스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지속적인 돌봄 모니터링이 필요한 케이스.
- ✓ Ct 자살을 시도한 이유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는 하는 마음과 우울감으로 인해 이제 그만 살아야 겠다, 이렇게 끝내고 싶다는 등의 생각에 의한 것이라고 함.

고독사 위험 가구 개입 사례



2023.10.26.

병원 신고를 받고 가정방문 초기상담 진행 후 다시살핌단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

6. 종로구 “위기가구 다시살핌단” 활동 사례

■ 사례 개요

- (가족사항) 독거노인가구 (만 69세)
- (소득) 총 893,370원 (생계급여 300,190원, 주거급여 270,000원, 기초연금 323,180원)
- (주거) 쪽방, 월세 (무보증 27만원)
- (건강) 치매, 정신질환(심한 우울증) 등
- (문제) 자살시도, 치매 악화, 자타해 위험으로 인해 洞 사례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

■ 위기 상황 개요

- 이0업 어르신은 동의동 쪽방에 거주하시며 현재 맞춤형급여(생'의'주) 대상으로 보호중임.
- 지난 2023.10.16.일 음독(농약)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본인 스스로 강북삼성병원을 찾아가 중환자실 입원하여 치료 받은 후 2023.11.06.(월) 퇴원하여 생활중인 독거 어르신임.
- 자살을 시도한 이유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 하는 마음과 우울감으로 인해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 이렇게 끝내고 싶다는 등의 생각에 의한 것이라고 함.
- 강북삼성병원 사회사업실 사회복지사의 전언에 따르면 이0업 어르신 스스로 입원했으나 의식이 돌아온 후에는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퇴원 시켜 달라고 항의를 하기도 하고, 약간의 섬망 증세도 있었다고 하며, 자살 재시도 위험도도 높은 편이었음.
- 이0업 어르신은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이고 가족이나 지인 등 지지체계도 없는 상태에서 가정으로 복귀한 상태로 지속적인 안부확인, 돌봄체계 마련 등을 위해 사례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임.

6. 종로구 “위기가구 다시살핌단” 활동 사례

■ 가구 현황

1. 가족사항 : 노인 단독가구
2. 혼인상태 : 이혼
3. 부양의무자
 - * 母 방0리(33년생), 경남 거제시, 시설수급자로 보호중
 - * 子 이0현(86년생), 서울 강서구, 4인가구, 일반수급자(생계'주'거), 남편은 개척교회 목사로 복직 중이며 특별한 수입은 없음.
4. 소득 및 재산
 - * 소득 : 월평균 890,870원 (생계급여 297,690원, 주거급여 270,000원, 기초연금 323,180원)
 - * 재산 : 2,541,260원 (국민연금 반환금)
5. 주거 : 쪽방 / 무보증 월세 270,000원
6. 건강
 - * 2023.10.16. 음독(농약) 자살시도로 입원치료 후 2023.11.06. 퇴원
 - * 섬망 증세 (의식의 혼란과 주의력, 인지능력 저하)
 - * 왼쪽 다리 불편 (지팡이 짚고 거동)
 - * 右眼 실명 상태라고 주장하며, 평소 어지럼증이 많다고 호소하심.

6. 종로구 “위기가구 다시살핌단” 활동 사례

추진 경과

- '23.10.16. 강북삼성병원 입원
- '23.10.19. 강북삼성병원 사회사업실(2001-2886)에서 의뢰. ★ 농약 음독하여 중환자실 입원, 자살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함.
- '23.10.23. 국가형 긴급지원(의료비) 신청 (강북삼성병원 --> 종로구청)
- '23.10.27.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
- '23.11.06. 강북삼성병원 퇴원 후 자택으로 귀가
- '23.11.07. 정부지원금 수령 계좌 사용불가 문제 해결을 위해 은행 방문 동행, 분실 신고된 계좌 정상지급 가능토록 조치 (하나은행 종로5가지점)
(본인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보 증 대변을 보심)
- '23.11.08.洞 일반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 서울노인복지센터 고독사예방사업(똑똑! 한 걸음) 서비스 의뢰
- '23.11.09. 다시살핌단 가정 방문하여 정부양곡 배달
- '23.11.13. 집주인(16동 통장)에게 거주지 2층에서 1층으로 이전 지원 요청
- '23.11.14. 모니터링담을 위한 가정방문, 특별한 일 없음.
- '23.11.15. 다시살핌단 가정방문하여 후원성품(라면) 지급 완료
- '23.11.17. 16시경 다시살핌단 주소이전 확인차 가정방문 했으나 집에 계시지 않음.
- '23.11.20. 동의동 쪽방상당소 신고 : 이0업 어르신 주말부터 소재 파악 안됨.
- '23.11.21. 이0업 어르신 가정방문, 집에 돌아오시지 않음.
- '23.11.23. 오전 11:30 112 실종신고

6. 종로구 “위기가구 다시살핌단” 활동 사례

추진 경과

- '23.11.24. 오전 09:30 하나은행 안국동지점 동행 방문: 생계급여 37만원 인출
오후 14시경 서울노인복지센터 고독사예방사업(똑똑! 한 걸음) 지원사항 통보
- '23.11.27. 오후 13:40 종로구보건소 동부진료소) 치매 검진 받음.
의사 소견상 심각한 우울증 동반한 자타해 위험성이 크고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치매 의심 소견 보이므로 즉시 병원치료 및 검사 권고
<신경과 소견> 인지기능 저하에 우울 삽화 동반되어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 필요
<정신과 소견> 급격히 진행되는 인지기능 저하, severe bilateral lobar deep microbleeding (심한 양측 엽 심부 미세 출혈) 보임.
영상 소견 고려시 cerebral amyloid angiopathy(뇌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가능성 높으며, 이와 연관된 치매 동반된 것으로 판단됨.
- '23.11.28. 오전 10시경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가정방문 상담, 상담센터 차원에서 개입하기 어렵고 병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
- '23.11.29. 오후 14:30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공무원 대리신청)
오후 15:00 동대문구 소재 효림요양병원에서 입원 가능함을 통보 받음.(11.30. 입원 가능)
- '23.11.30. 09:00 종로구보건소로부터 PCR 검사 결과 수령 (음성 확정)
- '23.11.30. 09:30 다시살핌단 효림요양병원(동대문구 답십리) 입원 동행 / 이0업 어르신 동의하에 병원관계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 예정
- '23.12.04. 09:00 이0업 어르신 강북삼성병원 외래 진료 지원을 위해 효림요양병원 방문
- '23.12.04. 10:05 다시살핌단 강북삼성병원 신경과 외래 진료 동행

※ 이0업 어르신 요양병원에서 무단 이탈하여 차도에서 자살시도하여 긴급입원으로 정신과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받으신 후
본인 의사에 따라 2024년 상반기 퇴원하여 가정내에서 생활하게 되었으며, 다시살핌단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상담 진행하였음.

민관주제발표 04

민간기관 차원의 고립 대응 및 효과성
- 서울노인복지센터 똑똑한걸음 성과 발표
(서울노인복지센터 최선희 부장)

종로구 내 고립 위험 중장년 및 노년가구의 고립해소 및 사회참여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사업

똑똑!한 걸음 성과 발표

2025년 서울노인복지센터 사회적 고립 연결 포럼

2025년 서울노인복지센터 사회적 고립 연결 포럼
똑똑!한 걸음 성과 발표

CONTENTS

목 차

01 3개년 사업 수행 내용 및 성과

- 사업 개요
- 3개년 사업 수행 방향
- 연차 별 주요 수행 내용

02 참여자 및 지킴이 활동가 변화

- 개요 및 일반적 특성
- 참여자 변화 결과
- 지킴이 활동가 변화 결과

03 제 언

3개년 사업 수행 내용 및 성과

- 사업 개요
- 3개년 사업 수행 방향
- 연차 별 주요 수행 내용

3개년 사업 수행 내용 및 성과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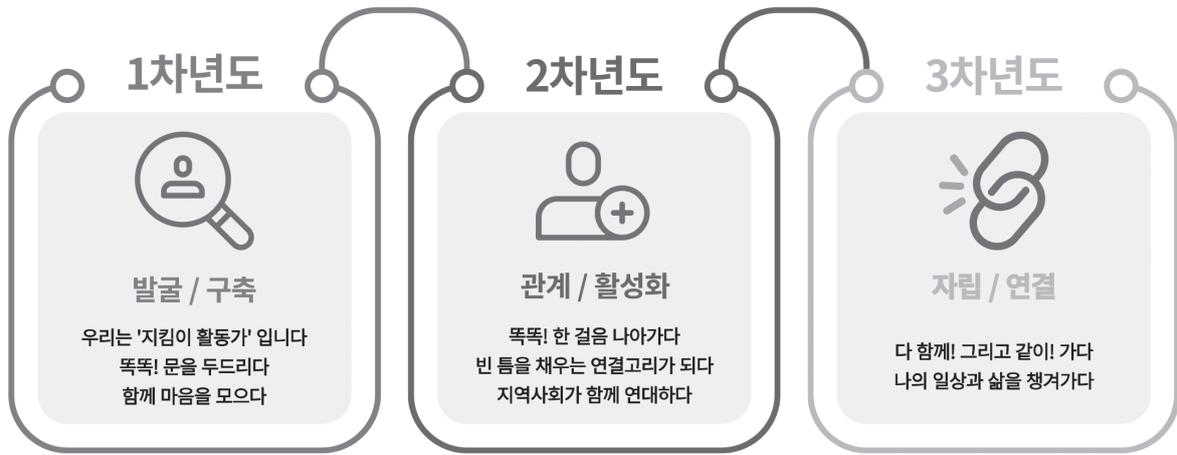
- **사업 기간** 2022년 8월 ~ 2025년 7월 (3개년)
- **참여 대상** 종로구 내 다가구주택 및 쪽방촌, 고시원 등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 및 노년가구
- **선정 기준** 자체 제작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건강, 지원체계, 심리정서 등 각 영역에서 고립 위험도 평가, 1~3순위 선정 * 체크리스트는 사회적 고립가구지원 매뉴얼(서울시복지재단, 2021) 참고하여 자체 구성
- **참여 현황** 실인원 - 접촉 : 1,528명, 발굴 및 지원 : 78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인원	접촉: 362명 발굴 및 지원: 49명	접촉: 619명 발굴 및 지원: 21명 (누적 70명)	접촉: 547명 발굴 및 지원: 8명 (누적 78명)
접촉 방법	자발적 참여, 지역주민 의뢰, 아웃리치 등 325회 기관 연계/의뢰 37회	자발적 참여, 지킴이활동가 발굴, 아웃리치 등 584회 기관연계/의뢰 35회	지킴이활동가 발굴, 아웃리치 등 539회 기관연계/의뢰 8회

2025년 서울노인복지센터 사회적고립 연결 포럼
똑똑!한 걸음 성과 발표

3개년 사업 수행 내용 및 성과

사업 수행 방향



2025년 서울노인복지센터 사회적고립 연결 포럼
똑똑!한 걸음 성과 발표

3개년 사업 수행 내용 및 성과

1차년도 - 발굴/구축

우리는 '지킴이 활동가' 입니다	<p>다양한 주체의 '지킴이 활동가' 양성</p> <p>어르신, 지역 주민 등 다양한 배경의 '지킴이 활동가'를 모집 및 교육하여 고립 가구 발굴 및 관계 형성을 위한 인적 자원을 확보</p>
똑똑! 문을 두드리다	<p>고립 위험 가구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p> <p>자체 제작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 초기 기반을 마련하고, 발굴된 참여자의 개별적 욕구에 맞춘 맞춤형 지원/연계 체계 구축</p>
함께 마음을 모으다	<p>지역 사회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p> <p>동주민센터(삼정동, 가회동, 종로1-4가동), 종로구청, 종로구보건소, 돈의동쪽방상담소, 서울대학교병원 등 23곳과 고립 가구 의뢰 체계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의료, 상담, 주거환경 개선 등 필요한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를 마련</p>

2025년 서울노인복지센터 사회적고립 연결 포럼
 똑똑!한 걸음 성과 발표

3개년 사업 수행 내용 및 성과

2차년도 - 관계/활성화

똑똑!
한 걸음 나아가다

일상 회복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일상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나아가 집단 프로그램, 점포 이용 활동 등을 통해 참여자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계망 형성을 지원

빈 틈을 채우는
연결고리가 되다

사업 지역 확대 및 적극적인 발굴 활동

신규 확대 지역을 중심으로 아웃리치를 강화하고, '지킴이 활동가'의 주도적인 발굴 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 위험 가구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

함께 연대하다

지역 사회 협력 네트워크 안정화 및 확대

유관기관과의 연합 워크숍 등을 통해 실무자 간의 관계를 증진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안정화했으며, 지역 자원 정보 아카이빙을 통해 연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2025년 서울노인복지센터 사회적고립 연결 포럼
 똑똑!한 걸음 성과 발표

3개년 사업 수행 내용 및 성과

3차년도 - 자립/연결

다함께!
그리고 같이 가다

중로구 전역으로 사업 확대 및 발굴 강화

활동 지역을 중로구 전체로 확대하여 지역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더 많은 고립 위험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캠페인, 아웃리치를 강화.
 특히, 탑골공원에 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고립 취약 계층 발굴을 확대

다함께!
그리고 같이 가다

유기적 협력과 주도적인 발굴

정기 사례회의 등 기관 간 협력 체계를 확립. 포럼 개최를 통해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지킴이 활동가'의 전문 역량 강화를 통해 자체적으로 참여자를 발굴하고 고립 위험 가구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

나의 일상과 삶을
챙겨가다

참여자의 일상 돌봄 및 자립

동네모임, 이웃서로돌봄을 통해 참여자가 동네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돕고, 길잡이 달력과 일상회복지원을 통해 스스로 일상을 챙길 수 있도록 하여 자립 도모

참여자 및 지킴이 활동가 변화

- 개요 및 일반적 특성
- 참여자 변화 결과
- 지킴이 활동가 변화 결과

참여자 및 지킴이 활동가 변화

참여자 변화 - 분석 개요

1. 분석 대상

- 사전 체크리스트 : 1~3차년도 똑똑한걸음 접촉 대상자 80명
- 사후 체크리스트 및 자기기입식 설문, 상담일지 : 3차년도 현 시점 계속 참여자 21명

2. 분석 방법

1) 자체 구성 '체크리스트' 사전-사후 분석

- : 건강(4문항), 사회활동 및 관계 (4문항), 심리정서 (4문항), 경제상황(4문항) 관련 고립 위험도를 확인하는 질문들로 구성됨
- : 초기접수 단계/현 시점 응답 내용 비교

2)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및 삶의 만족에 대한 자기기입식 설문 결과 분석

3) 참여자 별 상담일지 내용 분석 (참여 전 / 후 변화 내용)



2025년 서울노인복지센터 사회적고립 연결 포럼
똑똑한 걸음 성과 발표

참여자 및 지킴이 활동가 변화

참여자 일반적 특성

- 평균 연령 : 80세
- 남, 여 성별은 비슷한 비율이나 여성이 좀 더 많음
- 가구형태는 1인 가구의 비율이 78%로 대다수 차지
- 거주지는 삼청동과 탑골공원 인근 종로1,2,3,4동과 종로5,6가동이 많은 편

구분	내용	인원	비율
연령	60대	7	16.7
	70대	11	26.2
	80대	20	47.5
	90대	4	9.5
성별	남	19	45.2
	여	23	54.8
수급여부	기초생활수급자	18	42.9
	미해당	24	57.1
학력	무학	4	9.5
	초졸	9	21.4
	중졸	9	21.4
	고졸	5	11.9
	대졸	2	4.8
	기타	3	7.1
	무응답	10	23.8

구분	내용	인원	비율
가구 형태	1인 가구	33	78.6
	자녀와 거주	5	11.9
	배우자와 거주	1	2.4
거주지 (동)	무응답	3	7.1
	가회동	4	9.5
	무악동	1	2.4
	삼청동	10	23.8
	송인동	1	2.4
	종로1,2,3,4가동	16	38.1
	종로5,6가동	6	14.3
	창신동	2	4.8
혜화동	2	4.8	

2025년 서울노인복지센터 사회적고립 연결 포럼
똑똑한 걸음 성과 발표

참여자 및 지킴이 활동가 변화

참여자 변화 - 체크리스트 사전/사후 비교

	일자리	이웃 친구	복지관, 종교 등 공적자원	위급 시 도움주는 자원	말벗 지인	현재 걱정*	자살 생각*
유효 응답	12	12	12	15	12	12	11
변화 없음 또는 악화	66.7%	50.0%	66.7%	66.7%	75.0%	75.0%	90.9%
긍정적 변화	33.7%	50.0%	33.3%	33.3%	33.3%	25.0%	9.1%

- 유효응답 기준으로 각 항목에서 평균 약 33% (전체 3분의 1)가 긍정적인 변화를 보임
- 위급 시 도움을 주는 자원은 참여 전후 비교 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임 (McNemar Exact 검정)

맞춤형 개입 및 관계형성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통해
 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망(도움주는 자원, 이웃, 일자리 등)이 향상

참여자 및 지킴이 활동가 변화

참여자 변화 - 상담일지 내용 분석을 통한 주요 변화

참여자 상담 기록의 전반 - 후반의 내용을 분석하여, 주요 12개 영역에서의 활동 변화 내용을 확인 (n=26)

	장보기	청소 위생 관리	건강 관리	개인 정비	사회 참여	자기계발	경제활동	외부 여가활동	신체 활동	이웃과의 대화	이웃과의 활동	자녀와의 연락
없음>없음	38.5%	38.5%	-	-	23.1%	88.5%	76.9%	61.5%	42.3%	26.9%	34.6%	76.9%
있음>있음	5.4%	26.9%	69.2%	84.6%	50.0%	7.7%	11.5%	23.1%	38.5%	34.6%	34.6%	11.5%
없음>있음	46.2%	34.6%	30.8%	15.4%	26.9%	3.8%	11.5%	15.4%	19.2%	38.5%	30.8%	11.5%

- 자기를 스스로 돌보는 일들(장보기, 청소 위생관리, 건강관리-건강검진, 약챙기기 등)에서 뚜렷한 변화 확인
- 사회적 교류활동(이웃과의 대화, 이웃과의 활동, 사회참여)의 변화도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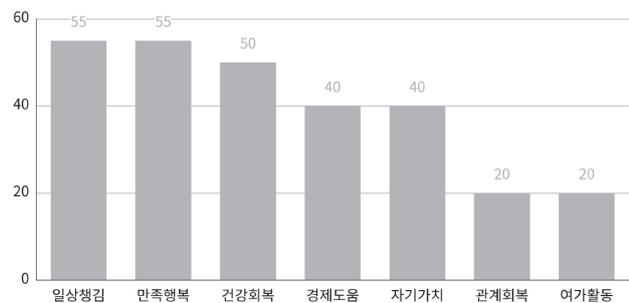
「 지원/도움을 받던 일상을 스스로 돌보게 되고, 새롭게 생겨난 관계를 유지하며
일상의 회복과 사회적 고립 예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

참여자 및 지킴이 활동가 변화

참여자 변화 - 프로그램 참여 전/후 변화에 대한 인식

변화 내용	응답 비율
일상을 더 잘 챙기게 되었다	55%
삶의 만족과 행복이 늘었다	55%
몸과 마음의 건강이 좋아졌다	50%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40%
스스로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게 되었다	40%
친구, 가족, 이웃과의 관계가 나아졌다	20%
사회생활 및 여가 활동이 늘었다	20%

프로그램 참여 이후 달라진 점에 대해 2가지 선택 (n=20)



- 참여자 절반 이상이 참여 전보다 일상생활에 대한 관리, 삶의 만족, 건강상태가 달라졌다고 응답
- 사회적 영역(주변사람과의 관계 증진, 여가활동 등)에서도 일부 변화를 보임 (약 5명 중 1명)

참여자 변화 - 삶의 만족 평가

(n=21. 5점 만점 기준)

	전반적 삶의 만족 (1-10점)	영역별 만족					
		건강	경제	여가문화	사회관계	배우자 (있을 경우 응답, n=3)	자녀 (있을 경우 응답, n=9)
평균	6.4	3.3	3.4	3.5	3.5	3.7	3.6
표준 편차	2.2	1.1	0.9	1.4	1.1	0.6	1.4

- 각 영역 별로 보통 이상의 만족 수준, 특히 여가문화와 사회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만족
- 똑똑한 걸음에서 주로 시행한 관계형성, 사회참여 프로그램들이 효과가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음

2024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60세 이상 노년층의 만족도 평균 6.3점,
 똑똑한 걸음 참여자 전반적 삶의 만족 6.4점

지킴이활동가 변화 - 분석 개요

1. 분석 대상

-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킴이활동가 중 조사에 참여한 3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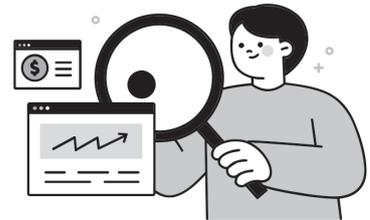
2. 분석 방법

1)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척도 결과 분석

: 자원봉사 만족도 측정도구 (Francis, 1982; 이재민, 황선영, 2004) 20문항

2) 주관식 설문 내용 분석

: 참여 후 변화한 부분,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인식 변화, 뿌듯했던 순간, 가장 기억에 남는 어르신에 대한 주관식 4문항 응답 내용 분석



2025년 서울노인복지센터 사회적고립 연결 포럼
똑똑!한 걸음 성과 발표

참여자 및 지킴이 활동가 변화

지킴이활동가 일반적 특성

- 평균 연령 : 42세
- 20대 청년 활동가(50%)와 6-70대 시니어 활동가(36.6%)로 나뉘어져 있음
- 여성이 80%로 높은 비율 차지
- 거주지는 종로구가 가장 많고, 인근 지역구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음. 주로 시니어 활동가는 종로구와 인근 거주, 청년활동가들이 타 지역에서 많이 참여하는 편

구분	내용	인원	비율
연령	20대	15	50.0
	30대	0	0.0
	40대	1	3.3
	50대	3	10.0
	60대	7	23.3
	70대	4	13.3
성별	남	6	20.0
	여	24	80.0

구분	내용	인원	비율
거주지 (동)	종로구	11	36.7
	은평구	3	10.0
	성북구	2	6.7
	서대문구	2	6.7
	동대문구	2	6.7
	노원구	2	6.7
	중랑구	1	3.3
	송파구	1	3.3
	동작구	1	3.3
	관악구	1	3.3
	강서구	1	3.3
	강북구	1	3.3
	수원시	1	3.3
성남시	1	3.3	

2025년 서울노인복지센터 사회적고립 연결 포럼
똑똑!한 걸음 성과 발표

참여자 및 지킴이 활동가 변화

지킴이 활동가 변화 - 자원봉사 만족도

(n=30, 5점 만점 기준)

	자원봉사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자원봉사는 다른 사람과 사귀는 기회가 되었다.	자원봉사를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맡은 자원봉사 업무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	내 주위사람들은 나의 자원봉사활동을 인정해주었다.	자원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	그 동안 수행한 자원 봉사 활동으로 인해 언젠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자원봉사활동에 투입한 노력으로 현재의 상황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	자원봉사는 개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평균	4.6	4.3	4.5	4.4	4.4	4.2	4.2	4.2	4.6	4.5
표준편차	0.5	0.7	0.5	0.6	0.6	0.6	0.8	0.6	0.6	0.6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내가 하는 선행이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봉사활동 대상자와 기관의 직원들은 나의 봉사활동에 대해 고마워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내가 가치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노력으로 봉사 활동 대상자와 봉사 기관 직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나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았다.	내가 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았다.
평균	4.5	4.2	4.5	4.6	4.5	4.3	4.4	4.3	4.2	4.3
표준편차	0.6	0.8	0.6	0.5	0.6	0.7	0.6	0.6	0.7	0.6

- 각 영역에서 4점대 이상,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임 (전체평균 4.4점)
- 이번 활동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개인적 성장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는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고마운 존재로 인식되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것에 대한 만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지킴이 활동가 변화 - 주관식 설문 주제분석(1) 스스로 가장 변화한 부분

시야의 확장과 인식 변화

고립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깨달음. 단순한 '도움'이 아닌 '교류'의 중요성 인식
"고립된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기적인 관심과 진심 어린 교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감과 소통 능력의 성장

다양한 세대와의 지속적 만남을 통해 공감력과 대화 능력 향상. 라포의 중요성 체득
"처음엔 대화가 어려웠지만, 진심을 나누며 어느 순간 라포가 형성되는 걸 느꼈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태도 변화

돌봄 대상자에 대한 태도 개선. 독거노인과 노인복지에 대한 편견 감소 및 관심 증대
"노인복지에 대한 편견이 줄고, 독거노인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지킴이 활동가 변화 - 주관식 설문 주제분석(2) 사회적 고립과 은둔에 대한 인식 변화

고립의 '가까움'에 대한 자각

고립과 은둔이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주변의 이웃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나타남
"멀리만 느껴졌는데 가까이에도 있구나 라는 생각."
"생각보다 바로 주위에 고립된 분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복합적 사회 문제'로 재인식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신체적·정서적·환경적 요인이 얽힌 복합적인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됨
"고립과 은둔은 외로움 정도라 생각했지만, 활동을 하며 복합적인 사회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정서적 단절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적극적 관심과 관계 형성의 중요성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관심과 정기적 교류 등 '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
"단순한 경제적 지원보다 정기적인 교류와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주변에서 한 걸음 다가가 관심을 가져준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킴이 활동가 변화 - 주관식 설문 주제분석(3) 뿌듯했던 순간

진심 어린 반응과 라포 형성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먼저 말을 건네거나 기다리셨다는 표현을 통해, 관계 형성과 신뢰가 이뤄졌음을 실감하며 뿌듯함
"나날이 라포가 형성되는 게 느껴지고, 어르신이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늘 같이 행복해졌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

도어락 수리, 복지연계, 핸드폰 사용법 안내, 생신상 준비 등 직접적인 도움을 드렸을 때 보람을 갖게 됨
"핸드폰 사용법을 알려드렸는데, 사진을 보내며 고맙다고 하셨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변화와 기대를 보여주는 어르신의 반응

단순한 만남을 넘어 어르신이 다음 방문을 기대하고 마음을 여는 모습을 통해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확신과 자긍심을 느낌
"다음 활동을 기대하신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킴이 활동가 변화 - 주관식 설문 주제분석(4) 가장 기억에 남는 어르신과 그 이유

정서적 교감과 따뜻한 환대

참여자 반갑게 맞아주고, 작은 선물이나 배려를 보여주는 어르신과의 정서적 유대가 깊은 인상으로 남음
"간식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신다는 말씀에 진심 어린 환대를 느꼈습니다."
"고작 한 번 방문한 저를 기억해주시고 친할머니처럼 대해주셨을 때..."

어르신의 긍정적 변화와 자립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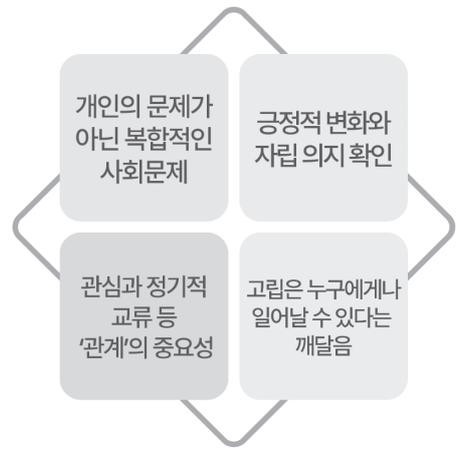
지킴이 활동 이후 삶에 변화를 보이거나, 스스로 사회적 활동에 나서는 등 성장과 회복의 과정을 함께 한 어르신이 인상 깊게 남음
"서울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 참여하며 자립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울증상을 이겨내신 어르신의 변화가 잊히지 않습니다."

개인적 친분 형성

친할머니처럼 느껴지는 모습, 손을 잡는 따뜻한 제스처, 소녀 같은 모습 등 개인적 감정이입이 가능했던 경험이 기억에 남음
"할머니와 닮은 분이래 더 마음이 가서 자주 생각났습니다"
"손을 꼭 잡고 손자녀처럼 대해주셔서 감동받았습니다"

지킴이 활동가 변화 - 주관식 설문 주제분석

고립은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것을 알게 되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함께 하다보면,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과정들



CONCLUSION

결론 및 제언

고립에서 연결로, 다양한 주체의 연결망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연결을 향하여

- 노년의 사회적/관계적 고립에 대한 관심 및 예방적 개입 필요
- 고립가구 발굴 및 연계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의 도입
- 연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전문성 강화 및 지속성 확보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공동 대응 노력 강화

결론 및 제언

1) 노년의 사회적/관계적 고립에 대한 관심 및 예방적 개입 필요

외부활동은 하더라도, 공적/사적 지원 체계 부재한 '고립'에 예방적 접근 필요

- : 고립/은둔 수준의 위험단계는 아니더라도 관계망 부재로 언제든지 위험해질 수 있는 단계의 참여자가 다수
- : 개별적인 욕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 및 집단활동이 효과적

탑골공원이라는 공간의 특수성 및 차별성에 맞춘 접근 필요

- : 느슨한 연결의 힘 (1973년 사회학자 마크 그라노베타 제시 개념)
- 친한 친구나 가족 같은 '강한 연결' 관계가 아니라 안면 정도 있는 지인이나 친구의 친구들을 통해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의미
- : 언제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여기에 있음을 알려주고, 지원하는 수준에서의 지지망'

Ex: 복지정보센터, 무료급식, 요리교실 등 서비스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외부활동 확대

결론 및 제언

2) 고립가구 발굴 및 연계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의 도입

지역/거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굴 전략 필요

탑골공원 / 쪽방촌, 고시원 등 가정방문이 어렵고 복지자원이 부족한 지역 (종로1-4가동)

- : 아웃리치와 캠페인 등을 통해 익명의 다수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
- : 무료급식, 요리교실, 나들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장벽을 낮춘 연결 시도

가정방문이 가능한 주거 지역, 커뮤니티와 서비스가 있는 지역 (삼청동)

- : 주민센터 및 마을활동가, 지역 통장, 주변 가게 등 지역자원들과의 유기적인 연계 활성화
- : 가정방문, 동네모임을 중심으로 한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맞춤형 지원

3) 연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전문성 강화 및 지속성 확보

지역, 대상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배경의 활동가의 모집, 양성

- : 동년배의 관점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어르신 지킴이활동가, 지역을 잘 아는 지역주민 지킴이 활동가
- : 손자/손녀의 느낌으로 경계심을 줄일 수 있는 청년 지킴이활동가
- : 양성된 활동가들이 각 지역에서 고립가구들을 만나, 복지체계에 연결할 수 있는 구조 마련

활동가의 전문성 강화 및 활동 만족도를 높이고 정기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 필요

-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화 교육과 정기적인 슈퍼비전 체계 마련
- : 활동 환경 개선, 정기적인 간담회 및 평가회, 활동비 지원 현실화 등의 지원/역량 강화 체계 마련 필요

Ex: 2025 노인역량활용사업 '서울형 탑골복지활동가' 운영

4)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공동 대응 노력 강화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의 질적 성장 도모

- :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맡아서 협력하는 구조 구축 필요
- : 공공-발굴, 민간- 사례관리 및 맞춤형 지원, 지역주민- 발굴 및 지지망 형성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과 자원 연계 체계 마련 필요

- : 정기적인 정보공유, 공동 사업 기획, 사례회의 활성화 등의 노력 중요

Ex: 노인맞춤형돌봄지원사업(광역), 종로구 다시살핌단(자치구), 똑똑한걸음(민간기관)

결론 및 제언

연결이 필요한 시대, 우리의 의미 있는 한 걸음

느슨한 복지를 중심으로

고립가구를 찾을 수 있는 선배시민을 양성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고립가구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어
고립가구의 일상회복과 사회참여, 자립에 함께하고자 함



